인기 절정 한국여자배구 포스트 김연경을 찾아라

박정아·이소영 등 국제 경쟁력 입증 기대

김연경

지금 한국여자배구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이다. 2012년 런던(4강),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8강)을 통해 높아진 한국여자배구의 위상은 2020도쿄올림픽 4강 진출로 한층 더 올라갔다. 김연경(33·상하이)이 이 3차례의 올림픽에서 모두 중심에 있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때도 팬들은 김연경과 한국여자배구에 열광했다.

지금이 한국여자배구의 최전성기다. 6일 오후 9시 시작된 한국-브라질의 도쿄올림픽 준결승 시청률은 무려 38.1%였다. 4강행을 이룬 4일 터키와 8강전은 평일 오전 경기였음에도 시청률이 17.8%였다.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김연경의 솔선수범 속에 '원 팀'을 이룬 여자배구대표팀이 선전을 거듭한 덕분이다.

이제는 김연경을 앞세워 어렵게 끌어올린 인기가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연경은 8일 세르비아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한 뒤 "사실상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매사에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언이다. 한국여자배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격, 수비, 서브 능력이 모두 뛰어난 김연경을 100% 대체할 자원을 당장 찾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그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대표팀의 국제대회 선전이 국내프로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

만약 김연경이 대표팀을 떠난 뒤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팬들이 계속 기다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김연경이 도쿄올림픽을 돌아보며 "선수들이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방향과 미래를 확인한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여자배구의 인기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김연경의 뒤를 훌륭하게 받친 박정아(도로공사)와 V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통하는 이소영(KGC인삼공사) 등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배구계는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입증한 박정아는 스스로도 "자신감이 커졌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미래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누구보다 아쉬운 노메달 박인비의 마지막 올림픽

여자골프 공동 23위 그쳐… "이번이 마지막"

박인비

'디펜딩 챔피언'이기에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두 번째 올림픽. 그래서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

5년 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골프 여제' 박인비(33)는 7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가스미가세키CC(파71)에서 끝난 도쿄올림픽 여자골프에서 합계 5언더파 공동 23위에 그쳤다. 넬리 코다(미국)가 17언더파로 금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나란히 16언더파를 친 이나미 모네(일본)와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플레이오프 끝에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함께 태극마크를 단 김세영(28), 고진영(26)은 똑같이 10언더파를 치며 공동 9위에 랭크됐고, 9언더파를 친 김효주(26)는 공동 15위에 자리했다.

"리우올림픽 전까지는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리우 이후로는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5년을 보낸 것 같다"고 돌아본 박인비는 "태극마크를 다는 게 나에겐 큰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했다"며 3년 뒤 파리올림픽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1988년생으로 올해 만 서른셋인 그에게 30대 중반이 될 3년 뒤 올림픽 재도전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 맏언니답게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운동선수라면 한 번 이상은 꼭 경험해봤으면 하는 무대"라며 "파리올림픽에도 (한국에서) 4명의 선수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곁들였다. 이제 다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돌아가는 박인비는 "곧 브리티시 여자오픈(AIG 여자오픈)이 열리고, 내년에도 메이저 대회가 있다.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개인 목표도 덧붙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도쿄올림픽 결산 〈상〉 뉴제너레이션의 탄생…기다려 파리!

1년 연기와 사상 초유의 무관중까지, 말 많고 탈 많던 2020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한 지구촌의 성대한 축제로 삼으려고 한 이번 올림픽은 대회 자체만을 놓고 보면 성공적이진 않았다. 그래도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도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오랜 땀과 노력의 결실에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냈다. 물론 감동만 가득하진 않았다. 메달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활짝 웃은 이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도쿄올림픽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한국스포츠의 '뉴제너레이션' 안산, 김제덕, 황선우, 우상혁, 여서정, 신재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은 도쿄올림픽에서 실력과 가능성을 꽃피웠다. 이들은 2024파리올림픽에서 더 뛰어난 성적을 기대케 한다.
도쿄 | 뉴시스·신화뉴시스

'뉴 페이스 반란'…3년 후가 더 두근두근

양궁 안산 3관왕·김제덕 2관왕
도마 신재환 金·여서정 銅 활약
수영 황선우 '뉴 마린보이' 등장
높이뛰기 우상혁 결선 4위 쾌거

도쿄올림픽에선 새로운 세대가 실력을 꽃피웠다. 어제와 오늘도 화려했지만, 3년 뒤 파리올림픽이 더 기대되는 샛별들이 도쿄를 수놓았다.

늘 강했던 세계 최강 한국양궁에선 안산(20·광주여대)과 김제덕(17·경북일고)이 잠재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정식종목이 된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빛 낭보를 전했다. 안산은 여자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휩쓸며 한국선수 최초로 하계올림픽 3관왕이 됐고, 김제덕도 남자단체전에서 우승해 2관왕이 됐다.

남녀 기계체조에서도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우리의 강세 종목이던 도마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2012년 런던대회 양학선(29·수원시청)의 활약을 바라보며 성장한 신재환(23·제천시청)은 남자 도마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섰고, 여서정(19·수원시청)은 여자 기계체조 최초로 도마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홍철 경희대 교수의 딸로 더 유명세를 탔던 여서정은 부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감동을 더했고, 부족함이 없는 실력으로 진정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근대5종 전웅태(26·광주광역시청)도 한국의 올림픽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남자 개인전 3위로 사상 첫 근대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올림픽 한국의 마지막 메달리스트인 그는 우리 선수단의 폐회식 기수로 선정되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오직 메달만이 기쁨을 준 것은 아니다. 쟁쟁한 실력자들의 벽을 넘어서진 못했어도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낸 이들도 있다. 약세 종목인 수영에서 차세대 스타가 등장했다. 첫 올림픽에서 아시아기록을 경신한 황선우(18·서울체고)다. 남자 자유형 100m에서 47초56에 터치패드를 찍었고, 결선 5위로 파리올림픽에서 선전을 예고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도 2m35로 결선 4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진택이 1997년 세운 2m34의 한국기록을 새로 쓴 것도 놀랍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한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욱일기 퇴출·세대교체 "뿌듯"…금메달 6개 목표미달 "아쉬움"

이기흥 체육회장이 본 도쿄올림픽

IOC로부터 욱일기 금지 문서 받아
"선수들 어려움 속 선전했다" 자평

이기흥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다시금 못을 박았다. 일본 안방에서 '전범기'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2020도쿄올림픽의 여러 수확물 중 하나다. 여기에 세대교체 등 분명한 희망을 확인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8일 오전 도쿄 빅사이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대회 결산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욱일기를 다시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 회장은 "올림픽 기간 내 욱일기가 경기장에서 전혀 안 보였다. IOC로부터 앞으로 모든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정확하게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받았기에 앞으로도 적용이 된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헌장 50조2항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상징하며 전범기로 불린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각종 스포츠 경기마다 욱일기를 들고와 응원을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해외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회장의 말처럼 향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볼 수 없다는 데 못을 박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냈다.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금메달 7개-종합 10위 이내 진입은 무산됐다. 금메달만 따지면 1984년 LA대회(6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이 회장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전했다"고 말했다. 또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뤄졌다. 10대 선수 11명, 21~23세 사이 20명을 발굴했다. 이 중 메달을 딴 선수가 10명에 달한다. 양궁 김제덕(17·경북일고), 안산(20·광주여대), 체조 신재환(23·제천시청), 여서정(19·수원시청) 등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했다.

최익래 기자

2020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종목별 메달 집계

종목	금	은	동	합계
양궁	4	0	0	4
펜싱	1	1	3	5
체조	1	0	1	2
태권도	0	1	2	3
유도	0	1	2	3
사격	0	1	0	1
배드민턴	0	0	1	1
근대5종	0	0	1	1
합계	6	4	10	20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